

주택연금

2017 SPRING
VOL.20

테마에세이

잃어버린 나를 찾는 새로운 여정

HF 초점

주택연금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꿈꾸는 시니어

본능에 순응하다, 배우 이정길

건강의 정석

쇼그렌증후군



흐르는 물도 바위 절벽을 만나야
아름다운 폭포가 되며
석양도 구름을 만나야
붉은 노을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상황들을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로
생각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더 나은 내일과의 동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함께 걷겠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스마트폰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삶을 위한 초대

I N V I T A T I O N



가슴 속 문을 두드리는 단어 봄맞이, 봄내음, 봄비, 우리들의 이. 봄.

‘봄’이라는 한 글자만으로도 이토록 설렘 수 있을까요.
좋은 의미 한 아름 담아 찾아온 계절, 봄.
이 시간이 전하는 인사에 당신을 건강한 삶으로
초대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득히 담았습니다.
궁금하신가요? 봄의 초대를 반겨주세요.

CONTENTS

2017
SPRING
VOL.20

더불어 아름다운 우리

04 노후행복편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 정용배

06 테마에세이
잃어버린 나를 찾는
새로운 여정

08 HF 초점
주택연금,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

10 꿈꾸는 시니어
본능에 순응하다,
배우 이정길

14 어떤 날, 어떤 하루
당신의 남쪽, 연남동

18 타인의 취향
시니어를 위한
실내 가드닝 노하우

20 집이 완성한 가치
내 손으로 만드는
만사형통 좋은 집

함께 나누는 공감

24 세계는 100세 시대
북유럽국가 시니어
복지제도 탐방

26 건강의 정석
쇼그렌증후군

28 바른 머니 사용법
2017년 실손의료보험
3가지 변화 포인트

감동을 부르는 소통

30 HF 시선
2017 은퇴금융아카데미 안내

32 HF 소식

33 독자의 소리

34 찾아가는 독자평가회

발행일 2017. 3. 24 **발행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등록번호 부산남, 바00004 **발행인** 김재천 **편집인** 류기운 **기획** 신월선 **이슬기**

에디터 제민주 신유경 김영은 **디자인** 이영환 우선정 **사진** 김재경 **일러스트** 한다혜 **인쇄·제작** 효민디앤피 Tel. 051. 807. 5100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공기업입니다.

주택연금 소식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주택연금-주택연금 홍보관'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니다
가는 빗줄기들이
옥색 실처럼 날려오고
나무들이 춤을 춥니다

그대에게
갈까요 말까요
내 맘은 절반이지만
날아 온 가랑비에
내 손은 젖고
내 맘도 벌써 다
젖었습니다

김용택 <봄비1>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 정용배

안녕하십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 정용배입니다.

오늘 부산은 하루 종일 봄비가 내렸습니다. 김용택 시인의 봄비1로 제 글을 시작해봤는데 어떠셨는지요? 봄이 비를 만나 따뜻한 봄비가 되었듯이,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어르신들을 만나, 어르신들에게 한층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설계를 위한 은퇴금융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은퇴금융아카데미는 은퇴 관련 경제금융지식과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최초 은퇴고령자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으로 3월 29일 부산과 안양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지역에서 강의를 개최합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은퇴준비와 재무설계,

상속과 증여 등의 금융강의와 금융사기예방, 가족과 소통하기 등 생활정보강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속 있는 교육 내용으로 '15년 348명에서 '16년 2,176명으로 수강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찾아가는 은퇴금융아카데미'와 'HF 은퇴금융 콘서트'를 도입하여 금융교육 소외지역 은퇴고령층에게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르신 한글교실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공사가 위치한 부산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한글을 배우시지 못한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은 활동입니다. 간단히 어르신의 편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마운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들에게

어느덧 금융공사 직원들과 정이던 것도 이년이 다 되어가는구요 목요일만 되면 손꼽아 기다려 지내요....(생략) 직원들 오셔서 할머니들을 한 자 한 자 가르쳐주시면서 너무 열성적이었죠....(생략) 일주일만 있으면 끝난다니 너무너무 섭섭합니다. 우리 또 언제 만날까요? 우리 할머니들은 모두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생략) 너무너무 고맙고 또 다시 만나는 날까지...

- 2016년 11월 3일 한○○ 어르신 -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지킴이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지난해에는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로 2016년 한 해 주택연금가입자가 1만 309명으로 전년대비 가입자 수가 59% 늘었습니다. 이는 주택연금이 생활비 부담 없이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활기차고 넉넉하게 지낼 수 있는 최적의 노후대비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저희 공사가 어르신들의 행복 노후에 이바지하겠다는 뜻을 세우고 주택연금 사업에 첫 걸음을 내디딘 지 이제 딱 10년이 되었습니다. 인생에 비유하자면 초등학생으로 더 많은 배움과 격려를 통해 성장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상품으로 더 큰 만족을 드리기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성장하기 위해 올 한 해도 한 걸음, 한 걸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 정 용 배

잃어버린 나를 찾는 새로운 여정

글_ 신유경



1952년 헤르만 헤세는 「노년에 대하여」라는 저서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커다란 추억의 그림책 속에서 자신의 삶을 조심스럽게 되돌아보면서 숨 가쁜 경주에서 벗어나 관조하며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척 좋고 아름답다고, 스스로 곱씹어 생각하지 않으면 인생은 그 가치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치열했던 레이스에서 빠져나와 한결 여유롭게 인생을 걸어가는 시간. 꼬여있던 매듭을 풀고, 그동안 내버려뒀던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잃어버렸던 나를 찾을 때가 왔다.

항구에 정박한 배처럼 느긋한

유년기, 청년기, 중년기를 지나 찾아오는 노년이라는 시간. 보통 인생 주기를 네 단계로 분류하긴 하지만, 사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임의로 구분하고 있는 것뿐이다. 결국 노년기라는 것은 청년기를 지난 이들, 즉 청춘을 살아낸 사람들이 도달하는 지점이다. 다른 단계로 접어드는 만큼 노년의 색은 다르다. 젊은 시절 밖을 향해 분주하게 시간을 보냈다면 이 시기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고 자기 속으로 집중해서 안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 지나온 삶을 차분히 되돌아보고 자신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반성하는 시간일 수 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젊은이가 아니라 일생을 잘 살아온 늙은이다. 험기가 왕성한 젊은이는 신념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고 운수에 끌려 방황하지만, 늙은이는 항구에 정박한 배처럼 느긋하게 행복을 즐긴다. 대니얼 클라인 〈철학자처럼 느긋하게 나이 드는 법〉中

기록은 지워지지 않고
오래 남는다.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일기 한 편은
마음을 다스리기 좋은
시간을 선물하기도 한다.

당신의 인생을 위해, 옴로!

2016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말 중 하나가 옴로(Yolo)였다. 옴로란 'You only live once'의 약자로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옴로라이프는 2016년에 이어 2017년을 이끌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의 행복을 즐기고, 자신이 가장 원하는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제까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빠르게 달려왔다면, '오늘'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다.

오늘의 행복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이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는지 알아야 하고 싶은 것도 생긴다. 스스로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신하지 말 것.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밖을 바라만 보았다면 어떤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그저 무기력하고 불만족스러움만 느낄 것이다.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일, 삶의 가치를 채우는 일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 골똘히 파악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이제껏 자신이 해왔던 많은 일들을 떠올려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간이 준비됐다면 가벼운 산책으로 호흡을 가다듬자. 걷는다는 행위에 집중할 것. 풍경을 보며 걷다 보면 사소한 것의 고마움을 얻기도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고 있던 자신의 꿈을 떠올리게 되기도 한다. 굳이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각 도시마다 걷기 코스 등이 조성돼 있으니 웹 사이트에서 '걷기 코스'를 검색해보는 것도 좋다. 일기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 글이라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저 생각나는 것들을 메모하는 정도로도 충분하다. 기록은 지워지지 않고 기억에 오래 남는다. 특히 문제가 생겼거나 우울할 때 일기를 쓰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우울한 마음을 털어낼 수도 있다.

고은 시인은 '내려갈 때 보았네 /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라고 적었다. 이제까지 빠른 걸음으로 앞만 보고 달렸다면, 그리고 아직도 그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지금, 행복하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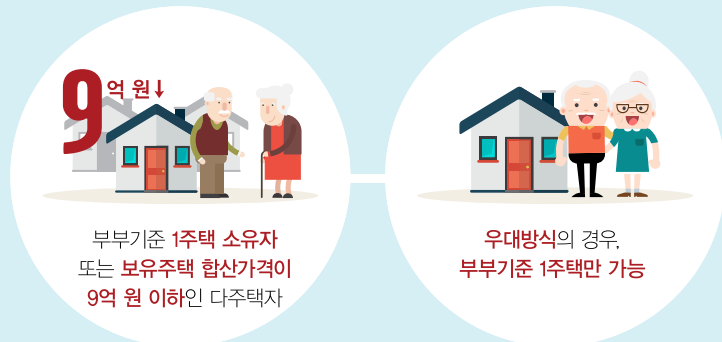
주택연금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정리_ 주택연금부

만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 혹은 배우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노후 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이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라는 점에서 높은 안정성을 자랑하고 있다.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 주택연금에 대해 살펴보자.

※ 만 60세 이상 :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소유자 혹은 배우자 중 연소자가 만 55 ~ 74세의 경우 해당.

01 주택보유수



※ 상기 외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

※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1.5억 원 미만인
다주택자 : 처분조건 가입 불가

02 대상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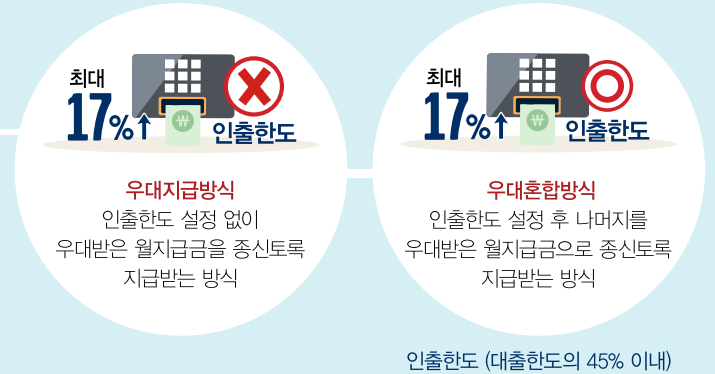
※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 : 전체 면적 중
주택 차지 면적이 1/2 이상일 때 가능

홈페이지 표 참조
주택연금 > 상품소개 > 가입요건

03 월지급금 지급방식



우대방식
1.5억 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17%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04 월지급금 지급유형

- 종신방식 : 정액형 or 전후후박형 중 선택
- ※ 종신방식의 경우 이용기간 중 지급유형 간 변경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 : 정액형



본능에 순응하다, 배우 이정길

글_ 제민주 사진_ 김재경

배우이면서 직장인이었고, 그 가운데 학업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학생이기도 했다. 배우 이정길이 이토록 다양한 수식어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매순간 그에게 찾아온 본능에 몸을 맡겼기 때문이다. 그저 흘러가듯 삶을 보내지 않았던 사람, 단 한 톨의 아쉬움도 남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는 그를 만났다.

하루에도 여러 건의 촬영과 녹화를 반복해요.
이런 삶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본능에 의한 근성’이라고
표현하고 싶군요.

질문에 대한 답에 차근차근 소신을 담아 전하는 이정길. 그는 브라운관 속과 똑 닮은 깊이 있는 모습으로 인터뷰 내내 응했다.

나의 오래된 동지, 연기자라는 길

대학시절 연극영화를 전공했던 이정길. 그는 연극무대 위에서 배우로서의 첫 출발을 시작했다. 생생한 연기를 보여야 하는 현장은 그에게 연기를 평생의 벗으로 삼을 수 있는 확신을 안겼다. 그렇게 1965년, 이정길은 KBS 공채 탤런트로 본격적인 배우 활동을 펼치게 됐다.

“올해로 51년째 연기자로 살아오고 있는데요. 이 일을 시작할 당시는 문화예술 분야는 먹고 사는 게 보장되지 않는 환경이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직업으로 삼는 건 감히 상상도 못했죠. 그 때 연기를 하겠다고 했으니, 집안에서 반대가 컸어요.”

하지만 이는 전화위복처럼 느껴졌다. 반대하는 분위기는 오히려 그에게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돈이 아닌 보람을 위해, 성취감을 위해 절대 놓칠 수 없는 꿈, 연기는 그에게 그렇게 닿았다.

“어제도 새벽 2시까지 녹화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뻑뻑한 일정이지만, 사실 늘 이렇게 지내와서 크게 힘든 건 없어요. 하루에도 여러 건의 촬영과 녹화를 반복하죠. 이런 삶을 버틸 수 있는 이유요? ‘본능에 의한 근성’이라고 표현하고 싶군요.”

그가 등장한 작품 수는 무려 150여 편에 달한다. 하나의 역할이 주어질 때마다 경중을 따지지 않고 창작의 과정을 거쳐 그만의 인물을 만들었다. 무언가를 창출해내는 과정 속에는 매번 동기부여가 필요했는데, 이는 고된 여정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에너지를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시간이었다고.

“가득 끌어올린 열정을 산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연기예요. 무대 위에서 쓰러져도 좋다는 열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배우라는 직업이고요.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애써요. 그게 연기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거든요.” 마치 음악가 베토벤이 아픔 속에서 되레 술한 명곡을 탄생시킨 것과 같았다. 차곡차곡 연기에 대한 바탕을 다져온 그는 그 위에 수많은 인물을 그려냈고, 오랜 세월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자신에게 ‘행운’이라는 표현을 붙였다. 진득하게 마주해 온 벗이지만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던 이정길. 그는 배우로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시간을 감사하고 있었다.



150여 편의 작품에 출연하며 자신만의 필모그래피를 멋지게 쌓아온 배우 이정길. 다양한 직업과 수많은 인물의 삶을 연기한 그는 매번 새로운 캐릭터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기 위한 탐구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 과정을 통해 시청자와 만난 작품 속 인물은 어느 것 하나 빛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일하고 배우고 나누며 살아가는 삶

그에게 작품에서의 역할이 아닌, 새로운 일이 주어진 건 9년 전이다. 바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의 부회장으로 직장인의 삶을 살게 된 것.

“연기는 쉽 없이 했지만 그 외의 모습은 그간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최근에서야 방송을 통해 소개가 된 부분인데요. 해외에서 유연탄을 수입해 국내 5대 발전사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촬영 스케줄을 배려해준 덕분에 큰 무리 없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된 건 환경에 대처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하지만 비단 이 뿐만은 아니었다. 친환경과 신재생 분야에 대한 개인의 소신 또한 부합한 결과였다. 그는 세계 메이저 업체가 독점하고 있던 국내 발전용 석탄 공급 시장에 뛰어들 회사 업무를 통해 우리나라의 해외자원 개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친환경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두각이 드러나길 바라는 비전을 품고 있었다.

“이 일은 하나의 사업 이상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회사

업무를 맡으면서 태양, 해양, 바이오 등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졌고요. 보다 넓은 사고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배우라는 직업에서 베테랑인 그는 직장인의 자리 역시 9년차의 노하우로 감당 중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친환경 사업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었다. 그건 바로 사회복지다. 올해로 16년째 대한사회복지회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직함만 보유한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처음 후원회장을 시작할 때 ‘따뜻한 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떠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형식적인 자리만 하나 껴차기보단 실질적인 도움을 보태고 싶었죠. 그래서 2년 전부터 사회복지학 전공 수업을 사이버 강의로 듣고 있어요.”

촬영과 근무로 수업을 꾸준히 이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지난 학기에는 휴학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봄, 다시 복학한 그는 열혈 학생의 면모를 뽐내며 새 학기를 맞이한 설렘을 누리는 중이다.

지인들과 술 한 잔 기울이며
이야기 나누는 걸 즐겨요.
소시민적인 삶을 위해
늘 노력하는 편이고요.
연기를 하는 직업이
특별할지는 몰라도,
제 자신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사회생활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각각의 단계를 통과하는 과정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배우의 길은 이와는 달랐다. 창조성 앞에 기민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배우의 감각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정길은 이를 막기 위해 캐릭터 탐구가 중요함을 역설했다. 같은 역할을 맡게는 다섯 번 이상 맡은 적도 있지만 그때마다 비슷한 듯 다른 오차를 만들어 냈다.

하지만 브라운관 속 완벽함과과는 달리, 일상에서의 모습은 카메라 앞과는 사뭇 다르다며 자신의 본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이 어간다.

“소시민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제 스스로가 소시민이라는 생각도 늘 잊지 않고요. 드라마 속 역할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역시 지친 하루 끝에 술 한 잔 기울이는 걸 즐기는 평범한 사람이죠. 감성적이고 여린 면도 많고요. 이런 성격이 연기생활을 할 수 있었던 배경 같기도 해요.”

소시민적 삶을 지향한다는 그의 생각은 자연스레 연기생활로 맞닿는다. 그는 살면서 유일하게 부린 욕심이 연기에 대한 갈망이었다며, 앞으로도 스스로를 투명하게 재점검하며 배우라는 본업을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을 내비친다.

지난해부터는 미즈실버코리아대회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인 그는 불혹의 나이는 마음이 얼굴에 고스란히 붙는 시기라며, 시니어들의 표정으로 드러나는 보이지 않는 가치의 진정성을 응원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외적인 부분에 투자하는 것보다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 건강을 위한 노력,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등 내면을 가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가치를 깨달은 분들을 높이 평가하는 이 대회에서 정말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요.”

지난 50여 년 동안 긴 공백기 없이 배우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 그는 현재 출연 중인 아침드라마 촬영이 끝나면 곧이어 새 일일 저녁드라마 촬영이 시작된다며 바쁜 일상을 알린다. 하지만 분주한 기색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좋아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그를 찾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마주하는 모든 순간에 감사를 표하는 배우 이정길. 그와의 만남은 새로이 맞이한 봄이 선사하는 포근함처럼 한없이 따뜻하 기만 하다.





어떤 날, 어떤 하루



한번 발을 디디면 쉽게 벗어나기 힘든 마성의 장소, 연남동. 이곳은 사소함 속에 숨어 있는 매력을 하나씩 돌씩 찾아 떠나는 동네 여행지로, 도심 속 모험객들을 달뜨게 만들기 충분하다.

당신의 남쪽 연남동

글_ 제민주 사진_ 김재경 협조사진_ 마포구청

아날로그 감성이 듬뿍 배어있는 서울특별시 연남동은 연희동의 남쪽에 있다고 해서 이 이름을 얻게 됐다. 떨어져 나오듯 분리된 동네이지만 그러기에 마땅한, 고유한 이름을 얻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 곳, 연남동.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이곳은 복닥하지 않은 고요한 멋을 찾는 이들을 향해 손짓한다. 여기만한 곳이 또 없다며,

사소함 속에 숨은 매력을 찾아서

‘고즈넉하다’는 표현이 딱 알맞다. 얹히고설킨 골목마다 놓치기 아까운 ‘예쁜 집’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하지만 이 멋들어진 장소의 숫자에 비해 동네는 오히려 한적함을 더 많이 품고 있다.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며, 화려하지 않고 아담했다. 주택가와 상점이 경계 없이 뒤섞인 풍경은 연남동 사람들이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렵듯이 유추할 수 있게 만든다. 한번 발을 디디면 쉽게 벗어나기 힘든 마성의 장소, 연남동. 여기는 옛 정취를 추억하고 싶은 사람들이 찾는 일번지로 부상 중이다.

홍대입구역에 내려서도 도보로 10분가량 걸어야 연남동의 초입에 다다른다. 동네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지만 그 이름값에 비해서는 여유롭게 걸을 수 있는 길이 더 많다. 오래된 주택가 사이사이에서는 예상

하지 못했던 뜻밖의 장소들을 만날 가능성이 다분하다. 목적지가 아니어서 헤매더라도 괜찮은 듯 그 낯선 길을 즐기는 사람들. 이들은 뜻하지 않은 이색 장소에서 신선한 매력을 느끼게 됐으며 오히려 만족스러운 듯 자유로운 모습이다. 연남동으로 향할 땐 자동차보다는 발이 편한 운동화 한 켤레를 준비하는 게 더 낫다. 주차가 불편한 주택가 사이에서 시간을 굳이 허비하는 것보다는 봄에 어울리는 산뜻한 차림으로 골목 투어를 서둘러 시작하는 편이 좋기 때문. 사소함 속에 숨어 있는 매력을 하나씩 돌씩 찾아 떠나는 동네 여행은 도심 속에서 즐기는 작은 모험이 되어 사람을 달뜨게 한다. 서로의 손을 잡고 걸으며 골목을 누비는 모녀의 모습, 사랑하는 연인에게 어울리는 액세서리를 골라주며 미소를 주고 받는 모습, 그리고 보행기를 끌고 미로처럼 복잡한 골목을 익숙하게





빠져나가는 어르신들의 뒷모습 등 연남동은 다양한 풍경이 교차되며 사소한 듯 특별한 매력을 풍긴다.

연남동, 이 세 글자가 불러 모은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쉬고, 웃고, 먹고, 걷는다. 어떤 이들에게는 독특한 명소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일상으로 다가오는 연남동. 소박한 동네지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만큼은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연트럴파크, 경의선숲길 공원

홍대입구역 3번 출구로 나오면 경의선숲길 연남동 구간이 시작된다. 깔끔하게 조성된 연못과 인공호수 주변으로 푸릇한 잔디가 펼쳐진 이곳은 도심 한가운데서 만나는 여유가 얼마나 달콤한지를 새삼 느끼게 만드는 곳. 경의선이 지하로 개통되면서 그 지상 공간을 '경의선숲길 공원'으로 재탄생시킨 서울시는 총 6개의 구간으로 경의선숲길 조성을 완공했다. 도심 속의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표방하면서 근현대사의 기억까지 붙잡을 수 있는 교육현장으로 공원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은 일제강점기, 남북전쟁, 분단 속에서 운행과 중단을 반복하다 남은 몇몇 구간마저 운행이 중단되며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 그런

폐철도가 서울시 도시 재생 프로젝트로 총 연장 6.3km, 폭 10~60m의 도심 숲길로 재탄생, 자연과 도시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었다.

길게 늘어선 메타세콰이어길과 작은 물소리를 내며 흐르는 실개천,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사람들의 느긋한 걸음 걸이, 그리고 돛자리 위에 몸을 맡긴 나들이객까지. 경의선숲길은 언제나 찾을 수 있는 도심 속 쉼터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 이 문구를 기억하는 이들이라면 경의선이 단순한 철도 이상의 의미를 지녔음을 알 수 있을 터. 인근 주민들은 물론 서울 시민과 이곳을 찾는 모든 여행객에게 경의선숲길 공원은 잊고 지냈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장소로도 뭇을 다한다.

경의선숲길에 붙은 재밌는 별명은 '연트럴파크'. 뉴욕 센트럴파크가 부럽지 않을 만큼 훌륭한 산책로는 경의선숲길에 이어진 동네들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기차가 다니던 노선 위로 공원을 만들어 폭은 넓지 않으나, 오히려 그래서 색다른 멋이 느껴지는 길. 특히 홍대입구역부터 가좌역까지 이어지는 연남동 구간은 걸을수록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 지칠 새가 없다.

● 연남동에
● 간다면
여기, 이곳

+ 문화적 시장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 연남동 동진시장

무르익은 오후, 연남동 유일의 재래시장인 동진시장에 활기가 들어선다. 여러 개의 출입구로 밀려들어오는 사람들은 도시 농부가 재배한 농작물과 손재주가 뛰어난 상인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 등을 흥정하고 또 구매한다. 매주 목~일요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열리는 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문화적 시장 형태로 연남동 내에서도 꼭 들러야 할 장소로 손꼽힌다. 야시장, 토요일장, 일요장 등 시간과 요일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는 동진시장은 '동진시장스러운' 매력으로 과거와 현대를 조우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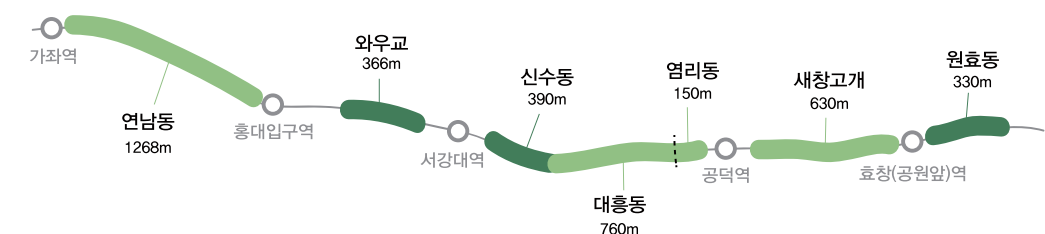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98

☎ 02-325-9559



사진출처: 동진시장 인스타그램 @dongjinsjang

+ 골라 걷는 '경의선숲길' 구간 소개



‘한국형 공원 상권’ 숲길을 따라 다양한 상점이 분포된 역세권이라고 해서 ‘숲세권’ 등 경의선숲길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 중이다. 총 연장 6.3km로 이어지는 숲길은 홍제천부터 용산문화체육센터까지 이어지는 공원구간(4.4km)과 경의선 및 공항철도 역사구간(1.9km)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여섯 개의 구간으로 나뉜 경의선숲길을 볼거리, 즐길거리 따라 골라 걸어보자.

1. 원효로 구간

경의선숲길의 출발지다. 옛 화차와 1906년에 개통된 경의선을 소개하는 히스토리얼 등이 설치되어 있다.

2. 새창고개 구간

용산구 효창동에서 마포구 도화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용의 허리’라고 불렸던 새창고개는 경의선으로 인해 단절되었다가 다시 복원되었다. 인근에는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효창공원이 있다.

3. 대흥동 구간

공덕역에서 서강대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에는 상업시설보다도 주거시설의 비중이 높다. 그래서 어느 구간보다 산책로 조성이 잘 되어 있다.

4. 신수동 구간

이 구간은 시냇물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한강으로 합류하던 인공하천인 ‘선통물천’을 재현하고 있는 실개천을 비롯해 잔디마당, 다목적광장 등이 조성되어 있다.

5. 와우교 구간

신촌과 홍대 사이. 과거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건널목에서 ‘땡땡’ 소리가 울렸기 때문에 ‘땡땡거리’라는 별칭이 있다. 홍대문화가 시작된 곳이자, 책거리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6. 연남동 구간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이 구간은 홍대입구역에서부터 출발한다. 이색 상점들이 등성등성 자리를 꿰차고 있다. 먹을 것, 놀 것 등이 풍부한 핫플레이스.

나를 위한 작은 봄을 내 집 울타리에

시니어를 위한 실내 가드닝 노하우

글_ 김영은

봄이 왔음을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은 꽃을 비롯한 식물이다. 움트는 봄을 구경하러 바깥에 나서는 것도 좋지만, 집 안에 작은 정원을 꾸려 손수 봄을 심어 보는 것은 어떨까. 가까이에서 두고 바라보며 직접 가꾸는 보람까지 느낄 수 있는 실내 가드닝. 몇 가지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다.



내 손으로 가꾸는 힐링

방 안에 작은 화분 하나, 꽃병에 꽃 한 송이만 꽂아두어도 실내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살아 숨 쉬는 식물을 직접 키우면 기분전환은 물론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더해 힐링을 느낄 수 있다. 식물을 보면 심리적으로 안정된다고 느끼는 원인은 바로 증산 작용 덕분. 이는 식물 속의 수분이 수증기가 되어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현상으로, 실내에 둔 식물은 일종의 가습기나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고 있다.

예비 가드너를 위한 TIP

Step1 적합한 장소 선정하기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자란다. 충분한 일조량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별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해 실내 가드닝 최적의 장소는 테라스 이외에 잘 없다. 다만 사람에게도 체질이라는 것이 있듯이 식물도 저마다 다른 성장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가령 이끼류 식물의 경우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햇빛을 피하고 물을 자주 줘야 한다. 반대로 사막과 같은 건조기후를 띠는 지역이 고향인 다육식물은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

Step2 비옥한 토양 조성해주기



밭이 좋아야 곡식이 풍성하게 영근다. 가드닝도 마찬가지다. 식물이 잘 자랄 만한 흙을 마련해주는 것이 가드닝의 첫 걸음. 물기가 지나치게 많아도 안 되고, 너무 말라서 모래처럼 부스러지는 흙도 좋지 않다. 흙 배합이 어렵다면 선불리 도전하기보다는 원예농가 등지에서 구입하는 편이 좋다. 흙을 갈아줄 때 유의할 점은 흙 속에 '공기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흙 사이로 물이나 공기와 같은 양분이 잘 스며들어 그것을 뿌리가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Step3 수경재배 식물부터 도전해보기



식물을 길러보겠다고 야심차게 도전하면서도 번번이 말라 죽이고 마는 대부분의 원인은 바로 물 주기에 있다. 조금 준다고 했던 것이 많거나, 많이 준다고 했던 것이 부족한 경우가 허다하다. 물조절이 까다롭게만 느껴지면 아예 물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로 가드닝에 입문할 것을 권장한다. 수선화, 톨립, 히아신스와 같은 구근류나 베고니아, 제라늄, 메리골드와 같은 초화류 그리고 페레로미아, 아이비 같은 관엽류는 수경재배가 가능하다. 수경재배는 뿌리의 상태를 직접 관찰할 수 있어 성장 상태를 쉽게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초보 가드너에게 제격이다.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

국내 최대의 화훼 시장. 다양한 종류의 화초와 관련 용품을 취급하는 400여 점포가 입점해있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상남 방면 버스를 타면 10분 이내에 도착한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대구 불로동 화훼단지

대구의 대표적인 원예 단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원예농원들이 즐비해있어 가드닝에 필요한 식물과 재료들을 구입할 수 있다. 101번, 101-1번, 급행 1번을 타면 갈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부산 영곡화훼공판장

낙동강 강변대로를 따라 올라가면 농산물 및 청과 도매시장과 나란히 입지해있다. 꽃뿐만 아니라 씨앗부터 시작해서 묘목까지 다양한 가드닝 품목들이 구비되어 있다.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강변대로

집이 완성한 가치

① 풍수 인테리어

내 손으로 만드는 만사형통 좋은 집

글_ 편집실

산과 바다, 물과 바람 등 자연 환경을 의식주와 결합시킨 풍수 사상. 이는 주거환경과 자연을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환경 심리학'이라는 말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좋은 자리를 소유해 그에 맞는 좋은 기운까지 누리겠다는 '명당' 개념으로도 이해되곤 한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며 고층 아파트와 주택 밀집구역 증가로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집은 찾기 어려워진 게 사실. 대신 그 자리를 '풍수 인테리어'가 채우고 있어 눈길을 끈다. 우리 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집, 이곳을 보다 풍성하게 채워주는 인테리어 방법을 소개한다.



집은 삶의 중심이 되는 터전이므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이 편히 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사람들의 행복과 운수에도 도움이 되는 곳이어야 한다.

자연으로 되돌리는 나의 보금자리

우리나라는 비교적 좁은 토지 안에 많은 인구가 조밀하게 분포한다. 그러다보니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

중심의 가옥이 발달되어 있다. '집' 하면 단독주택보다 고층 아파트가 먼저 떠오르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다세대주택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어지는 만큼 거주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그래서 편의성을 우선시한 획일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건축 자재도 마찬가지. 건축업체가 친환경적인 소재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선조들이 '풍수 사상'에 기반을 두고 나무, 흙 등의 자연 소재로 집을 지었던 것과 비교해볼 때 철골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건물은 인체에 좋지 않다.

그렇다고 지금의 다세대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옛날처럼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최대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조상들의 지혜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 집은 삶의 중심이 되는 터전이므로 거주자가 심신양면으로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이 편히 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사람들의 행복과 운수에도 도움이 되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풍수지리가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래 전부터 풍수 사상을 중시해온 중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합리성을 중시하는 미국과 영국 등 서구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다. 인간과 환경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풍수 사상은 집터를 잡는 데서부터 시작하지만 집 내부를 단장하는 데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적절한 인테리어를 통해 집이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기운을 머금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 풍수 이론이 과학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장풍득수와 배산임수, '풍수의 유래'

풍수라는 말은 '장풍득수(藏風得水)'에서 유래했다. 차가운 북서 계절풍을 감춰주고 농사에 필요한 물을 얻기 쉬운 곳이라는 뜻으로, 이러한 입지조건을 가진 곳이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명당이다. 우리 선조는 이렇듯 산과 땅의 모양, 시내의 흐름 등 자연의 지형지세가 인간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자연에서 태어난 인간이니 자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여긴 것이다.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지형이 장풍득수의 최적화된 지형. 기는 물을 만나면 움직이는 것을 멈추고 한 곳에 모이게 되는데, 집 뒤에 위치한 산에서 흘러내린 기가 집 앞에 있는 물을 만나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고 집이 위치한 터에 자연스레 고이게 되는 원리다. 내 집이, 크게는 집이 속한 고장이 배산임수하면 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배산임수의 좋은 기운을 입게 된다.

이렇듯 풍수는 '인간은 자신이 사는 곳과 분리되지 않고 합일을 이룬다'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 사람과 공간이 조화를 이루어 삶의 질을 높인다는 뜻인 것. 이러한 풍수 사상은 집터를 잡는 데서부터 시작하지만 집 내부를 단장하는 데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우리나라의 주거환경 상 터를 바꿀 수는 없기에 적절한 인테리어를 통해 집이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기운을 머금도록 할 수 있다.

일상 속 풍수지리를 위한 몇 가지 제안

시작은 공간을 비우는 것부터

풍수지리를 들이기 위해서 공간에 여유를 주는 일부터 시작한다. 이는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 라이프'와도 일맥상통한다. 사두고 잘 쓰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자. 있는 물건도 정리정돈을 통해 가지런한 상태를 유지한다. 물건을 계절이나 사용 빈도에 맞게 수납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납 시 수납장에 꽉 채우기보다는 틈을 주어야 좋은 기운이 흐를 수 있다. 공간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기의 흐름을 원활히 해주기 위함임을 기억하자.

가구배치를 통한 풍수지리 효과

집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침실이다. 사람은 수면을 통해 내일을 위한 활력을 얻는다. 침실에 전자제품이 있다면 가급적 밖으로 빼내자. 전자제품은 생활의 편리를 더해줄지는 몰라도 기의 흐름은 방해한다. 가구는 철제나 플라스틱보다는 나무 소재로 된 것을 선택한다. 전자제품 없앨 수 없다

면 목재가구 안에 수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거울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복을 반사해서 내보내므로 현관에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눈높이보다 높은 가구 배치는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낮게 배치하는 것이 좋다.

아기자기한 소품을 활용할 것

인테리어 소품으로 곧잘 활용되는 것이 그림이다. 집 안에 길 그림을 고를 때는 초상화 등의 인물화보다는 꽃 그림이 좋다. 꽃 그림은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 걸어도 운수를 좋게 한다. 다만 사람이 그려진 그림과 달리 가족사진은 풍수적으로 좋은 아이템이니 적극 활용하자. 거실 커튼은 지나치게 두꺼워 빛을 차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풍수지리에 대한 관심이 희미해진 때에도 남향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듯이 채광 또한 풍수지리에서 강조하는 사항. 커튼의 색상은 밝고 화사한 흰색이나 베이지톤이 좋다.

북유럽국가 시니어 복지제도 탐방

시니어가 꿈꾸는 미래를 그려낸 지상낙원

글_김영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 이는 은퇴자의 인정된 노후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시니어 복지제도가 될 수 있다. '복지'하면 언제나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는 유럽 국가들. 그 중에서도 꿈에 그리듯 한 시니어 복지를 구현해놓은 북유럽의 시니어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 개인맞춤형 시니어 복지 서비스 구현, 스웨덴

고령화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는 현재, 요양병원이 많이 늘어난 것이 피부로 와 닿는다. 부양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시니어들은 이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잦아졌는데, 과거 스웨덴의 경우 시니어들은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요양원에서 노년을 보내야 했다. 그리고 이는 시니어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일괄적인 국가 행정처리라는 점에서 반감을 샀다. 이 점을 보완하여 스웨덴은 현재, 사회복지사와의 개별상담을 통해 각자가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15년 '헬프에이지'가 시행한 시니어 복지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니어를 위한 제도가 잘 마련된 나라 2위에 스웨덴이 선정된 건 당연지사. 시니어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주는 것이 시니어 복지의 핵심임을 시사한다.

🇩🇰 IT 기기 도입으로 시니어 복지 극대화, 덴마크

덴마크의 시니어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활동하는 것이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라 여긴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요양서비스를 받기보다는 자택에서 스스로 생활해나가는 것을 선호한다. 이에 시니어들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정부 차원에서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IT 기기를 구입하여 보급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IT 기기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로봇청소기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비데, 주방용 로봇, 재활치료용 로봇 등이 있다. 혼자 살기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양로원에서 생활하기도 하는데, 이곳에도 자발적인 활동에 도움을 주는 기기들을 비치해두었다. 이러한 시니어 복지 관련 IT 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로 관련 분야 산업의 활성화라는 효과까지 더해지고 있다.

🇫🇮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니어 복지 원조, 핀란드

핀란드에서도 타인의 도움이 필수가 되기 전까지는 시니어 혼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시니어의 사회적 고립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시니어들의 고독감을 해소하기 위해 은퇴자들이 스스로 나서 만든 것이 '로푸키리'라는 공동체. 이곳에서는 함께 생활하며 동아리활동 등을 통해 활기찬 일상을 보낸다. 시니어들이 직접 만든 실버타운 '꼬띠사파마'도 있다. 이곳은 의도적으로 시니어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대부분의 시설이 공동으로 이용되게끔 마련되어 있다. '로푸키리'와 '꼬띠사파마'의 시니어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꾸려가는 데 필요한 일을 분담하고, 각자 맡은 역할 속에서 큰 보람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국가는 그저 이들에게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거나 예산을 할애하는 등 최소한의 부분만 지원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시니어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주택연금에 향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연금 제도의 벤치마킹 모델인 미국의 HECM은 부동산을 은퇴자금으로 활용하려는 시니어들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영국은 Lifetime ISA 도입을 통해 주택구입과 노후 대비 자산형성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정책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증가액은 3조 원에 그쳤다. 특히 아동, 청소년, 장애인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시니어 복지에 대한 지원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아직은 복지국가로서 개발도상 중인 한국이지만, 주택연금 제도를 통해 국내 시니어들의 복지 수준을 북유럽 못지않게 끌어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신의 샘물이 말라드는 질환

쇼그렌증후군 건조증후군

글_ 이상현 건국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쇼그렌증후군은 이 병을 명명한 스웨덴 안과의사 헨릭 쇼그렌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이다. 그러나 요즘은 기억하기 어려운 사람 이름의 진단명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증상을 일컫는 말로 대체되는 추세다. 그래서 건조증후군으로 불리는 경우가 더 많다. 이 증후군은 류마티스 질환의 일종이지만, 관절을 공격하는 관절염과 달리 면역세포가 우리 몸의 각종 '샘'들을 공격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면역체계 이상으로 생기는 질환, 건조증후군

혈액 내에는 백혈구, 그 중에서도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라는 세포가 있다. 이 세포들은 면역기능, 즉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 등의 외부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병원균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침입자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것. 이 세포들은 인체의 프로그램 상 우리 자신의 조직이나 세포는 공격하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그런데 만약,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 이 세포가 우리 몸의 조직 또는 세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조직은 파괴될 것이고, 염증이 발생하며 궁극적으로는 해당 장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샘'에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

인체의 대표적인 샘으로는 먼저 눈물샘이 있다. 눈물이 안 나오면 건성안이 되고 심해지면 결막염이 된다. 안과의사인 쇼그렌이 가장 먼저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눈이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제일 수분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또 침샘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망가지면 침이 잘 나오지 않게 된다. 따라서 과자 같이 물기 없는 음식을 먹기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어진다. 침에는 소화효소가 있기 때문에 침 없이 음식물을 삼키면 소화불량을 일으키기 쉽다. 또한 침에는 항균물질도 있어 원활한 분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충치, 치주염 등이 발생하여 결국은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이렇듯 침이 나오지 않는 증상은 단순히 입이 말라서 문제가 아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치과 치료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드는 일이다.

또 기관지샘의 경우에는, 점액이 분비되며 호흡기로 들어오는 먼지, 세균, 이물질 등을 잡아주는 1차 방어막 역할을 하는데, 이 보호막이 허물어지면 감기,

기관지염에 자주 걸리고 심한 경우 폐렴이 되기도 한다.

여성외음부 질벽에도 샘이 존재하여 분비물이 나오는데, 여기에 장애가 발생하면 칸디다질염이 발병하기도 한다. 이는 부부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여름에는 습한 기후와 땀으로 인해 무심코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나, 겨울에는 건조한 날씨에 난방까지 더해져 가려움증 등 피부 발진이 많이 생긴다. 이처럼 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증세가 나타난다.

수분을 충분히 채워주는 것이 예방의 지름길

건조증후군은 류마티스 전문의가 진찰하고 면역이상을 체크하는 혈액검사와 침샘 영상검사로 쉽게 진단할 수 있다. 문제는 치료인데 아직까지 완치시킬 수 있는 약물은 없다. 다만 류마티스 관련 약물치료가 매우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는 만큼 곧 근본적인 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최선의 치료다. 인공눈물 수시로 사용하기, 침 분비를 자극하는 약물요법, 스케일링을 비롯한 세밀한 치아관리, 보습로션 등 대중적 치료를 잘하면 큰 문제 없이 생활이 가능하다. 가벼운 증상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전문 진료를 통해 조기에 질환을 발견해서 치료 받는 것이 추가적인 합병증이나 임플란트 치료 등의 고액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2017년 실손의료보험 3가지 변화 포인트

글_ 배상현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2016년 6월 기준 3,296만 명이 가입하며 우리나라 대표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이는 다른 보험상품보다 필수라는 인식이 강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납입한 실손보험료 대비 지급받은 실손보험금의 비율이 129%가 넘어서는 등 손해율이 급증하며 실손의료보험의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봄, 실손의료보험의 3가지 사항을 개편하게 되었다.

POINT 01

첫째,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에 주목

현행 보험소비자는 질병과 상해에 대한 치료행위를 포괄적이고 획일적으로 보장해주는 단일 실손의료보험 상품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가 바뀌어 ‘기본형’ 또는 ‘기본형+특약(①~③)’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여기서 특약 ①~③을 제외하고는 현행 실손의료보험과 동일하게 보장받는다. 보험소비자가 기본형만 가입할 경우 저렴한 보험료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약 ①

- 도수치료(맨손으로 신체를 주물러 통증을 완화하거나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
- 체외충격파 치료(질환 부위에 충격파를 전달하여 염증과 통증을 감소시키는 치료)
- 증식치료(염증을 줄이기 위해 주사를 사용하는 치료)

특약 ②

- 수액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사제)

특약 ③

- 비급여 MRI(자기공명영상)검사

POINT 02

둘째, 특약항목에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보장횟수 확인

기본형의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보장횟수 등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지만 특약항목에 대해서는 자기부담비율 상향조정(20%→30%), 보장한도 250만 원~300만 원, 보장횟수는 50회로 제한(특약③은 제외)한다. 특약항목 3가지의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보장횟수를 제한한 이유는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치료를 예방하고 보험료가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여 선량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 특약에 따른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비율 〉

구 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자기부담 비율	1회당 2만 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장한도	연간 350만 원(50회)	연간 250만 원(50회)	연간 30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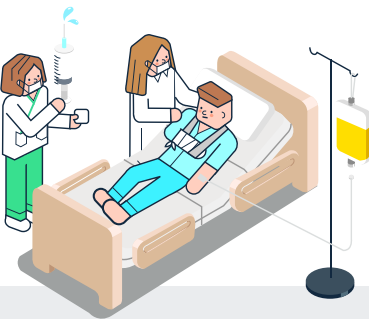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POINT 03

셋째, 보험료 할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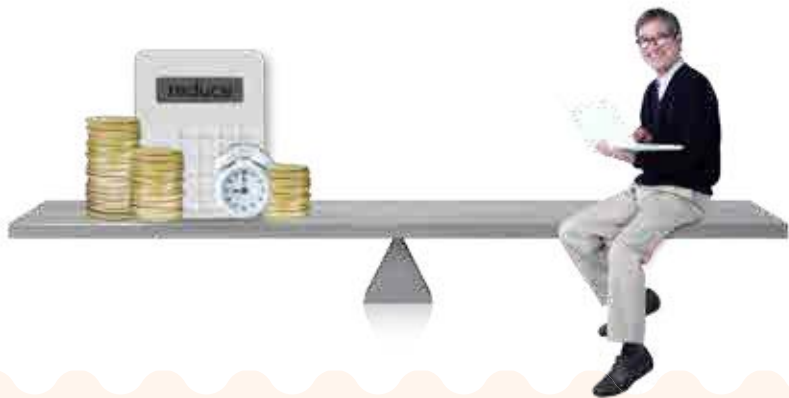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해 직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연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준다. 다만, 급여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미청구 금액으로 판단하여 2년간 다른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3가지 변화점은 오는 4월부터 실행예정이다. 보험소비자의 특약 관련 선택권은 확대되었지만 보장한도 등은 기존보다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신규로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소비자는 변화되는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가 싫은 보험소비자는 미리 현행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2017 은퇴금융아카데미 내실 있는 은퇴를 위하여

정리_ 편집실



은퇴자 및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관련 경제금융지식과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은퇴금융아카데미. 매년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진행되어 온 은퇴금융아카데미가 2017년에도 문을 활짝 열고 수강생을 맞이한다.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시작된 맞춤형 금융교육, 이 위상에 걸맞은 탄탄한 프로그램은 당신의 은퇴 후를 '막연함'이 아닌 '설렘'으로 채워줄 것이다.

목소리! 은퇴금융아카데미

2015년 348명이었던 수강생은 지난 2016년 2,176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25%가 상승한 높은 증가치를 보였다. 이는 상당한 수치로 은퇴금융아카데미를 시작한 이래 매년 더욱 탄탄해진 프로그램이 은퇴자 및 은퇴예정자들의 마음을 읽었다는 찬사를 이끌어내고 있다.

은퇴금융아카데미는 은퇴준비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수강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대개 프로그램의 특성상 수강생의 대부분은 50~60대의 시니어가 주를 이루는 상황. 비슷한 연령대와 시기라는 공통분모 아래에서 수강생들은 소통하는 즐거움 또한 누릴 수 있다. 은퇴금융아카데미의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사례 중심 표준교재를 공사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수강생은 일정시간 출석 시 공사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다.



**2015년도
'금융소비자보호대상' 수상**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증진에 기여한 상품과 서비스에 주어지는 상

**2016년도
'경향금융교육대상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및 신용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개인에 주어지는 상

은퇴
금융아카데미
인기 비결 4

1. 차별성
- 자산형성 방법에 치중된 기존의 일화성 강의 NO! 은퇴금융아카데미는 금융교육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장수 리스크, 저금리, 부모부양 등 인식변화에 따른 은퇴설계와 노후생활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2. 맞춤형
- 전문적인 금융 정보+실생활과 연관된 건강·생활 정보로 강의를 구성하며, 쉬운 용어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해도를 높인 눈높이 교육을 지향한다.
3. 최신·최적
- 오랜 기간 축적된 금융 지식과 경험으로 최적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매년 새로운 법률 정보와 금융 정보를 강의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4. 시너지·에너지
- 비슷한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수강생과의 만남을 통해 소통의 즐거움을 누린다.

프로그램
구성

구분	회차	금융강의	생활정보강의
정규 과정	1	은퇴준비와 재무설계 • 재무설계 현황점검 및 방향설정	응급처치교육 •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및 AED 사용법
	2	소득과 지출관리 • 연금 관리, 주거자산의 활용, 지출 통제, 절세상품의 활용	금융사기예방 • 보이스피싱, 개인정보유출, 전자사기 예방
	3	자산과 부채관리 • 은퇴 전후의 위험관리, 보험관리, 신용관리, 채무조정제도	가족과 소통하기 • 건강 가정, 부부 및 자녀 소통교육
	4	상속과 증여 • 상속세와 증여세 바로 알기	명사특강 등 • 명사 초청 강의 등
특화 과정	1	지역 맞춤형 강좌 • 부동산 시장 등 관심사항	
	2	법률 · 세무 상담서비스, 노후 재무설계 상담서비스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지역별, 기수별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아카데미 일정

지역	지사	요일	3월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도권	서울서부	화		4.4~25			8.29~9.19			
	서울동부	상반기:월/화 하반기:월			5.22~30			10.23~11.13		
	서울북부	상반기:월 하반기:월/수		4.3~24					11.6~15	
	서울중부	상반기:목 하반기:수			5.11~6.1		9.6~27			
	서울남부	상반기:화 하반기:화/목				6.13~7.4		10.17~26		
	경기남부	상반기:목 하반기:화/목		4.6~27				10.31~11.9		
	경기중부	상반기:수 하반기:화	3.29~4.19				9.5~26			
	인천	화			5.10*~30			10.17~11.7		
	강원	수		4.5~26						
동남권	부산	상반기:수 하반기:월/수	3.29~4.19				9.4~13			
	대구	상반기:화 하반기:수/목		4.4~25			9.20~28			
	울산	수			5.10~31			10.11~11.1		
	경남	상반기:월/금 하반기:수			5.8~19			10.18~11.8		
	제주	목/금(예정)					9.21~22(예정)			
서남권	광주	목	3.30~4.20				9.7~28			
	대전	목		4.20~5.18				10.12~11.2		
	충북	목						10.19~11.9		
	천안	목			5.11~6.1					
	전북	목						10.26~11.16		
	순천	목/금(예정)				6.1~2(예정)				

*인천지사의 경우, 5월 첫주만 수요일에 진행합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주택금융 리더

HF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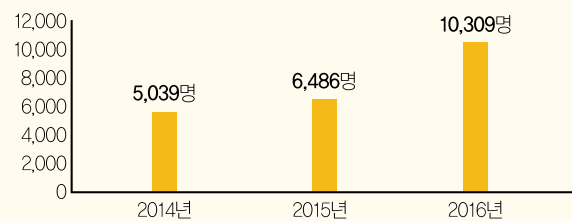
주택금융공사, 2016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1등급(7년 연속)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가 201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사는 '반부패 청렴 TF'를 구성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자체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등 윤리정책 부응에 힘쓴 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8.86점으로 공직유관단체 전체기관 평균점수(8.17점)보다 0.69점이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김재천 사장은 "7년 연속 반부패 우수 공기업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대내외적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힘쓰는 청렴선도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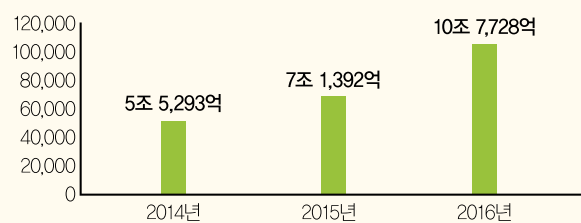
주택연금, 지난해 신규가입 1만 명 돌파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주택연금 가입자가 총 1만309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가입자(6,486명)보다 58.9% 증가한 것으로, 2007년 주택연금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가입자는 3만 9,429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급증세는 지난해 「내집연금, 3중세트 출시 및 가입요건 완화」에 힘입은 것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주택연금이 주요한 노후준비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9억 원 초과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요건 완화와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허용 등 다양한 상품개선을 통해 더 많은 고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수



주택연금 보증공급액

안심주머니 앱 개편,
개인 금리조회 및 알리미 기능 추가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기존 '안심 住Money' 앱을 대폭 개선한 신규 서비스를 지난 1월 10일부터 시작했다. 이번에 개선된 안심주머니 앱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직접 설정하는 '관심 상품' 기능을 통해 금리 및 상환방식 등 대출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우리동네 주택금융 알리미'를 통해 지역별 주택거래 정보나 청약 1순위 예치금 정보 등을 알려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각 메뉴별 정보는 카카오톡을 통해 타인에게 전송할 수도 있다. 안심주머니 앱은 지난해 말 누적 다운로드 35만 건을 넘어섰으며, 앱 이용 시 보금자리론 금리할인(0.02% 포인트)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설탕이 사랑 나눔 행사, 사회공헌활동 실시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지난 1월 24일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 부산시 거제천로에 있는 '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설탕이 사랑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천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보금자리 봉사단이 참여해 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하고 900여 명의 어르신들께 떡국을 대접했다. 김재천 사장은 "공사는 주택연금 등 어르신의 복지향상에 도움을 드리는 기관으로, 앞으로도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공사 관계자 또한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작은 나눔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공사가 되겠다"고 전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행정자치부 간 재산세 감면 전산연계로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업무혁신에 앞장섭니다.

주택연금
독자의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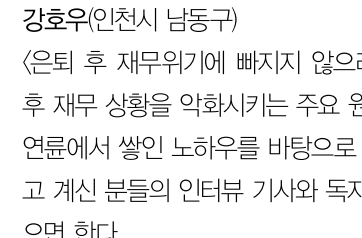
이춘임(경기도 의정부시)

그동안 주택연금 상담이라고 하면 주택금융공사를 직접 찾아가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저는 주택연금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를 통해 가까운 은행에서도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반가웠다. 다음 호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주택연금 제도를 시행한 해외선진국들의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 소개받고 싶다.



왕채연(전남 여수시)

<시니어를 위한 겨울철 보양식>이 가장 인상 깊었다. 그렇잖아도 요즘 기운이 없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하나 싶었는데 이 기사를 접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 다음에는 은퇴 후에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에 관해 추천해줬으면 한다. 은퇴한 뒤 일상에 찾아오는 적적함을 채워줄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해주기를 바란다.



강호우(인천시 남동구)

〈은퇴 후 재무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에서 유비무환의 지혜를 얻었다. 은퇴 이후 재무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과 그 대안을 알 수 있어 유익했다. 다음에는 연륜에서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랑의 봉사활동을 하며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의 인터뷰 기사와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줬으면 한다.

내가 선택한 나의 행복, 주택연금

정리_ 편집실

30여 년간 시청 주택건축국 소속으로 근무해온 맹광재 씨. 그는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터를 잡고, 이어지는 과정을 줄곧 지켜보며 누구보다 집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절절히 느끼고 있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자신의 집을 통해 스스로에게 기쁨을 전하고 있다. 주택연금을 만나 여유로운 은퇴 후를 누리고 있는 맹광재 씨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맹광재 고객

찾아가는 독자평가회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지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내가 두 분을 간호하며 수고가 많았어요. 아이들 모두 결혼 시켰고, 저도 퇴직까지 했으니 이제는 그간 고생한 아내와 쉼을 누리며 살고 싶었죠.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도 고려해봤고요.”

은퇴 후 허전한 일상을 달래기 위해 맹광재 씨가 가장 먼저 고민한 건 귀향이 었다. 하지만 고향에서 과수원 운영을 꿈꿨던 그의 기대와는 달리 이는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아내가 식당 운영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지속할 수 없었다고. 여러 시도들이 번번이 실패라는 쓴맛으로 돌아오자 은퇴 후의 시간이 슬럼프처럼 여겨지기도 했던 맹광재 씨. 하지만 그는 절망에 머무르기보단 그가 잘 아는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아파트 동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했고, 당선이 됐어요. 주택이나 아파트 쪽으로 는 아는 정보가 많았기에 자신 있었고, 일이 재밌기도 했죠. 지금은 경기도 아파트연합회 이사, 김포시 아파트연합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어요.”

집과 관련된 일로 분주한 일상을 살던 그가 주택연금을 만난 건 2015년 여름. TV를 통해 노후 생활대책으로 4가지 연금(주택연금, 공무원연금, 농지연금, 일반보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그는, 수감할 수밖에 없는 주택연금의 장점에 이끌려 다음날 공사 서부지사를 찾았다.

“은퇴 후 새로운 일을 벌이면서 값아야 할 돈이 조금 생겼었어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니 이 부분부터 해결이 되더군요. 그리고 연금 수령이 매월 이뤄졌죠. 응어리 같은 마음의 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밤잠을 설치게 만들만큼 고민거리였던 문제를 주택연금 가입과 함께 해결한 후, 맹광재 씨는 그가 참석하는 각종 모임에 자연스럽게 주택연금을 홍보하는 역할을 자처하게 됐다. 아파트연합회 모임과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 등을 방문 할 기회가 생기면 손수 정리한 연금 소개서까지 챙겨 시니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을 들려줬다.

“서부지사서 연금 내용을 소개하는 리플렛 등 작은 정성을 많이 보태주셨어요. 빈손으로 어르신들을 찾아뵙지 않도록 말이죠. 김포시 아파트신문에 주택 연금 광고를 싣고 있는데 이것도 보여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어요. 다른 뜻은 없어요. 제가 주택연금 덕을 봤으니, 다른 분들도 이런 여유를 누렸음 하는 바람인 거죠.”

자신을 돌아볼 겨를 없이 바빠 달려온 시니어들의 노후. 맹광재 씨는 이런 시니어들이 행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택연금의 근본적인 역할이 아니겠냐며 자신의 소신을 전한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 과정에서 실망하기보단 ‘나’를 위한 ‘선택’을 주저 없이 해보는 것. 이 당당함이 노후를 의미 있게 채우는 비결이라고 말하는 맹광재 씨. 그는 자신이 만든 행복을 진정 멋지게 만끽 중이다.

금융개혁
금융의 경쟁력
이제 금융의 차례입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자식에게 물려 줄 것은 집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노후입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이 당신의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 평생 거주, 평생 지급(선택 시)을 약속합니다.
- ✓ 국가가 보증합니다.
- ✓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요건충족시 재산세 25% 감면)
- ✓ 연금을 받으며 **목돈인출이 가능**합니다.
- ✓ 모자라면 **공사가 부담, 남으면 상속**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17년 2월 기준)

주택가격	2억원	3억원	5억원	7억원
60세	41	62	104	146
70세	61	92	154	215
80세	96	144	240	336

주택연금 상담 및 신청방법

- ① 상담/신청 ② 심사 ③ 보증약정/담보설정
- ④ 보증서발급 ⑤ 대출실행(금융기관)

- 신청인이 전화 및 인터넷으로 상담 예약이 가능하며,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약정을 하시고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2부),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열람표, 가족관계 증명서, 인감증명서(2부), 주택연금신청서, 신분증, 도장

관할지사 주택연금 가입문의

※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설명서를 참고하거나 지사 혹은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중부지사 : 02-2014-7540,7541,7542
- 서울남부지사 : 02-3290-6523,6526,6529
- 서울북부지사 : 02-3499-3341,3342,3343
- 서울동부지사 : 02-2049-1377,1388,1399
- 서울서부지사 : 02-2638-1931,1932,1938
- 강 원 지 사 : 033-259-3615
- 강릉업무팀 : 033-660-4712
- 인 천 지 사 : 032-420-2139,2159
- 경기남부지사 : 031-8014-1161,1163,1164
- 경기중부지사 : 031-478-7050,7051
- 부 산 지 사 : 051-520-3981,3984,3985
- 대 구 지 사 : 053-430-2419,2422
- 안 동 업 무 팀 : 054-850-3411,3412
- 울 산 지 사 : 052-240-5840
- 경 남 지 사 : 055-278-2909
- 진 주 업 무 팀 : 055-750-3012
- 제주지사 : 064-798-5166
- 광주지사 : 062-370-5740
- 대전지사 : 042-251-2691
- 충북지사 : 043-299-2823
- 천안지사 : 041-559-5231
- 전북지사 : 063-249-2730
- 순천지사 : 061-760-6706
- 홈페이지 : www.hf.go.kr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젊고 건강한 삶을 위한 초대

1.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아신다면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나요?

2. <주택연금>은 어디에서 읽으셨나요?

3. 이번호에서 가장 유익했던 기사 혹은 아쉬웠던 기사는 무엇인가요?

4. 앞으로 <주택연금>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나, 제안사항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봄’이라는 한 글자만으로도
이토록 설렘 수 있을까요.
좋은 의미 한 아름 담아 찾아
온 계절, 봄.
이 시간이 전하는 인사에 당
신을 건강한 삶으로 초대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득히 담
았습니다.
궁금하신가요? 봄의 초대를
반겨주세요.



2017
SPRING
VOL.20

엽서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앞으로 제작되는 <주택
연금>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12일 금요일까지 엽
서를 보내주신 분 중 5분을 추첨
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
습니다. 많은 의견 바랍니다.

시니어라이프 종합 매거진
Vol. 20

노후행복편지 주택연금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수집 및 이용 목적 : 엽서 당첨자 공지 및 상품 발송
- 수집항목 : 이름, 주소, 전화번호
- 보유기간 : 동의 철회 시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앞

